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2026년 의회사무처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일정 ····· 3

Ⅲ. 캐나다 현황 ····· 4

Ⅳ.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 15

1-1. 밴쿠버 공립도서관 ····· 15

1-2. BC플레이스 밴쿠버, 밴쿠버 컨벤션센터 ····· 17

2-1. 밴쿠버 시청·시의회 ····· 20

2-2. 비아레일 ····· 26

3-1. 재스퍼 국립공원 ····· 28

3-2. 밴프 국립공원 ····· 30

3-3. 요호 국립공원 ····· 32

4-1. 리치먼드 시청 ····· 34

4-2.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 36

5-1. 부차드 가든 ····· 39

5-2. 빅토리아 주의사당 ····· 41

Ⅴ. 맺음말 ····· 43

Ⅰ 연수개요

○ 연수국가 : 캐나다

○ 연수기간 : 2026. 5. 10.(일) ~ 5. 18.(월) / 7박 9일

○ 연수목적

1. 캐나다의 친환경 공공건축과 국제회의시설(MICE)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컨벤션 인프라 구축 및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지방의회 운영체계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모델을 연구하고자 함.
3. 복합문화공간과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다문화 공공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의 공간 운영과 특화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국립공원과 철도 연계 관광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관광 인프라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5.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행정 및 시민참여형 행정서비스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정책과 포용적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시설의 사후 활용과 지역 연계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전략 및 스포츠시설 활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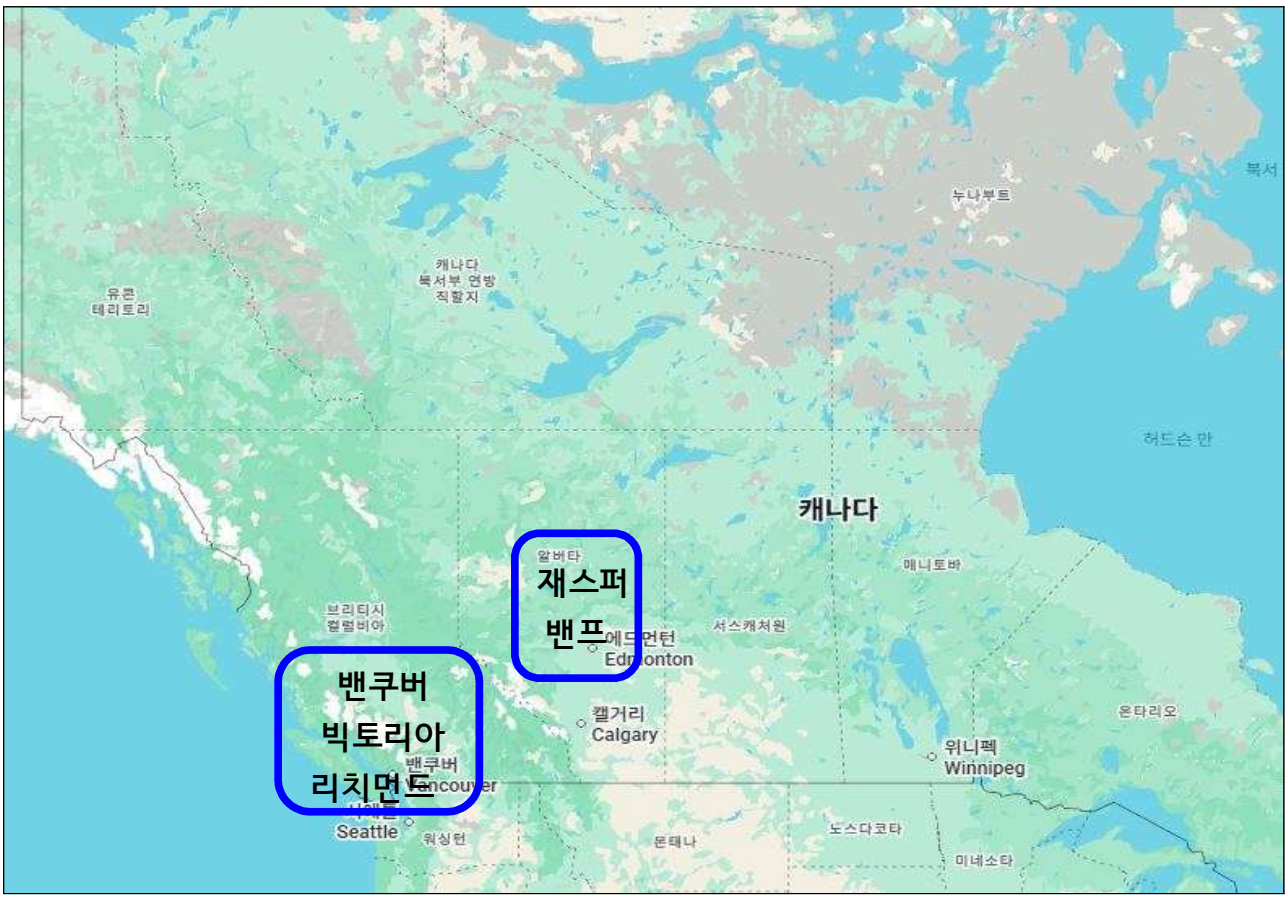
○ 연수자 명단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비고
	합 계		10명	남6, 여4
1	기획행정전문위원	행정4급	채 종 우	단장
2	기획행정전문위원	행정5급	강 재 욱	
3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행정5급	배 병 욱	
4	의사담당관	속기6급	조 무 견	
5	의사담당관	속기6급	최 인 숙	
6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행정6급	이 환 희	
7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행정6급	김 태 균	
8	총무담당관	행정6급	이 우 재	
9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행정7급	이 지 은	
10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행정7급	박 가 현	

Ⅱ 연수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5.10)	전 주 인 천	12:00 18:45	· 전주 출발 · 인천국제공항 출발	
	캐나다 (밴쿠버)	12:35 16:00	· 밴쿠버 공항 도착 **·BC 플레이스 밴쿠버 방문** - 대형 국제이벤트 운영체계 조사 **·밴쿠버 컨벤션 센터 방문** - 친환경 건축 및 MICE 산업 전략 조사	
2일차 (5.11)	밴쿠버	10:00 15:00	**·밴쿠버 시청 방문** - 지방의회 운영사례 조사 등 **·밴쿠버 공립 도서관 본관 방문** - 복합 도서문화 공간 조성 모델 견학 **· VIA Rail 기차 탑승(1박)** - 장거리 철도 기반 관광운영 체계 조사	
3일차 (5.12)	재스퍼	11:00	**·재스퍼 도착 및 권역 이동** - 철도 연계 국립공원형 관광거점 현장 조사	
4일차 (5.13)	힌튼, 콜롬비아	10:00	**·아이스필드파크웨이, 레이크루이스 시찰** - 산악·빙하 경관자원의 보전 활용 사례 조사	
5일차 (5.14)	밴프	10:00 18:00	**·밴프 다운타운** - 저탄소 녹색도시 우수 사례 조사 **·요호 국립공원 현장답사**	
6일차 (5.15)	켈로나, 오카나간, 리치먼드	10:00 15:00	**·켈로나, 오카나간** - 지역 특화 자원 고도화 사례 벤치마킹 **·리치먼드 시청** - 다문화 공존 행정서비스 통합사례 조사 **·리치먼드 올림픽 오발 방문** - 올림픽 사후시설 운영 모델 시찰	
7일차 (5.16)	빅토리아	10:00 14:00	**·BC 주 의사당 방문** - 의회 상징공간 답사 **·부차드 가든 현장 답사** - 폐광 부지 도시재생 우수사례 환경답사	
8일차 (5.17)	밴쿠버	00:5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9일차 (5.18)	인 천 전 주	04:25 12:0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Ⅲ 캐나다 현황



□ 일반현황

○ 언어 : 영어·프랑스어 등 / 면적 : 9,984,670㎢(세계 2위)

○ 수도 : 오타와 / 인구 : 약 4,147만명(2026. 1월 기준)

○ GDP : 2조 2,436억$(2024, World Bank)

○ 기후 : 지역별 기후 편차가 크며, 서남부 해안지역은 비교적 온화한 기후

○ 종교 : 기독교 53.3%, 무종교 34.6%, 기타 종교 12.1%

○ 정치체제 : 연방제 입헌군주국(의원내각제)

○ 행정구성 :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

□ 역사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원주민(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땅임. 16세기 이후 프랑스와 영국의 탐험가들이 진출하면서 유럽인의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풍부한 모피자원을 중심으로 식민지가 형성되었음. 특히 프랑스는 세인트로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뉴프랑스를 건설하였고, 오늘날 퀘벡주의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음.

18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 간 북미 패권 경쟁인 7년 전쟁 이후 프랑스는 대부분의 북미 영토를 영국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캐나다는 영국령 식민지로 발전하였음. 영국은 프랑스계 주민의 언어와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날 캐나다의 이중언어 및 다문화 사회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1867년 영국 의회의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 Act)」 제정으로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이 연합하여 캐나다 자치령(Dominion of Canada)이 출범하였음. 이후 서부와 북부 지역이 순차적으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연방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철도 건설과 서부 개척을 통해 국가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20세기에는 제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사실상 입법 독립을 달성하였음. 이어 1982년 「캐나다 헌법법」을 제정하여 헌법 개정권까지 자국으로 이양하면서 완전한 주권국가로 자리매김하였음.

현대의 캐나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문화주의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국제연합(UN),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민족

캐나다의 인구는 약 4,2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가운데 하나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국가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이후 이민과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왔음.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연방정부는 두 언어를 동등한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있음.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행정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브런즈윅주는 캐나다 유일의 공식 이중언어 주로 운영되고 있음. 연방정부는 국민 누구나 두 언어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캐나다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포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 유럽계 이민자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출신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원주민 문화의 보존과 권리 회복 역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국민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법질서 준수,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포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숙련인력 중심의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AI), 친환경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언어교육, 직업훈련, 공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캐나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자연환경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로,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북극해와 접하고 있음.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 국경을 공유하며, 북극권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국토는 로키산맥, 캐나다 순상지, 대평원, 세인트로렌스강 유역, 북극권 툰드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만 개 이상의 호수와 세계 담수의 약 20%를 보유한 물의 나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국토의 약 3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적인 산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음.

기후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큼.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반면, 중부 내륙은 한랭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북부는 긴 겨울과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극지 기후를 보임. 이러한 기후적 다양성은 농업, 관광, 에너지 개발 등 지역별 산업구조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이기도 함.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니켈, 구리, 칼륨,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수력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아 전체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음. 최근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병행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자연환경은 국가 경제와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등 세계적인 국립공원은 자연보전과 관광을 조화시키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체류형 생태관광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과 주정부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도시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대중교통 중심 도시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배출 저감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경제

캐나다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 제조업, 금융·서비스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북미 경제권의 핵심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 산림자원 등 천연자원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앨버타주의 오일샌드와 서부지역의 천연가스 산업은 세계적인 생산 규모를 자랑함. 니켈, 우라늄, 칼륨, 리튬 등 핵심 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배터리와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의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온타리오주는 북미 자동차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퀘벡주는 항공우주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발전하였음.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교육·의료·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토론토는 북미를 대표하는 금융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밴쿠버와 몬트리올은 영화·게임·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

관광산업 또한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임. 로키산맥과 국립공원, 나이아가라 폭포, 오로라 관광, 대도시 문화관광 등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관광과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밴쿠버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국제회의시설은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MICE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Net-Zero Emissions by 2050)' 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 친환경 교통체계, 디지털 전환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정치

캐나다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연방국가로,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행사하는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식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한 지방분권 체계를 갖추고 있음.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입법과 예산심의, 내각 구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상원은 총독의 임명을 통해 구성되어 지역 대표성과 법률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행정부는 총리가 이끄는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며, 총리는 하원 다수당 또는 연립정부의 대표가 맡게 됨. 내각은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행정을 총괄하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의회의 책임 아래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정치 원칙을 따르고 있음.

캐나다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주의(Federalism)에 있음. 전국은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함. 국방·외교·통화정책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교육·보건·사회복지·지방행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음.

지방정부 역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주민공청회, 시민위원회,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밴쿠버와 리치먼드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포용적 행정서비스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구조를 적극 운영하고 있음. 주민 의견수렴과 공공협의를 제도화하여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행정 모델은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캐나다의 정치문화는 타협과 협치를 중시하는 합의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정치 운영방식은 안정적인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음.

□ 교육과 복지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주정부가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분권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연방정부는 원주민 교육과 연구지원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주정부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교원 임용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만 5~6세부터 16~18세까지 실시되며, 초·중등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공교육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캐나다 교육정책은 학생 중심 교육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있음.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프로젝트 중심 수업, 융합교육(STEAM)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에 맞춘 영어·프랑스어 교육과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등교육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토론토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UBC), 맥길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연구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제학생 유치와 산학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의료보험(Medicare)을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와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음. 부모휴가 제도와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캐나다는 이민자 비중이 높은 국가 특성을 반영하여 정착지원 정책도 적극 운영하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언어교육, 취업지원, 직업훈련, 생활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복지행정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스마트 헬스케어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통합복지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음.

□ 문화와 예술

캐나다의 문화예술은 원주민 문화와 프랑스·영국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세계 각국의 이민문화가 더해져 형성된 다문화 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문화 다양성을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는 국민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

원주민 문화는 캐나다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étis) 공동체는 고유의 언어와 예술, 생활양식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토템폴(Totem Pole), 전통공예, 음악과 춤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음. 최근에는 원주민 문화의 복원과 문화적 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공문화시설과 교육과정에서도 원주민 문화가 적극 반영되고 있음.

도시별 문화예술 인프라도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음. 토론토는 공연예술과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몬트리올은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예술축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밴쿠버는 영화·영상산업과 현대미술이 발달한 도시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캐나다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음. 특히 밴쿠버 공립도서관(Vancouver Public Library)은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디지털 창작공간(Inspiration Lab), 시민교육, 창업지원, 평생학습,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의 자료 제공과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축제문화 또한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몬트리올 국제재즈페스티벌, 캘거리 스탬피드(Calgary Stampede), 밴쿠버 국제영화제(VIFF), 캐나다 데이(Canada Day)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연중 개최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대표 행사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축제는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건축과 도시문화 역시 캐나다 문화예술의 중요한 특징임. 밴쿠버 컨벤션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으며, 친환경 설계와 해양생태 보전, 국제회의 기능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알려져 있음. 또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주요 도시는 공공미술과 녹지공간, 친환경 도시계획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최근 캐나다는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음.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콘텐츠,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문화예술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자산이자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1963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양국은 2022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구축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국방·방산,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한 우방국으로, 약 2만 7천 명의 장병이 참전하였으며 500여 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감내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인연은 양국 간 신뢰와 우호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현재도 안보와 국제평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경제 분야에서는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자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원유, 천연가스, 목재, 곡물, 핵심광물 등을 공급하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캐나다에는 약 24만 명 규모의 한국계 동포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와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한국문화원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K-팝, K-드라마, 한식, 한글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대학 간 교환학생과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양국 청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지방정부 간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환경정책, 스마트시티, 공공도서관 운영, 생태관광, 지방의회 운영, 다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선진 지방행정과 주민참여형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도 중요한 참고모델이 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MICE 산업 육성, 대표도서관 건립,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및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외국인 주민 정책,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밴쿠버 컨벤션센터, 밴쿠버 공립도서관, 리치먼드 시청, 캐나다 국립공원의 운영사례는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 교육, 과학기술,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 앞으로도 양국은 친환경 산업과 첨단기술, 문화교류,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상생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Ⅳ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1-1 밴쿠버 공립 도서관 본관 방문

○ 방문일정 : ‘26. 5. 10.(일) 14:00
○ 주　　소
- 35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B 6B1 캐나다
○ 홈페이지
- https://www.vpl.ca/

□ 방문지 소개

○ 밴쿠버 공립도서관(VPL) 본관은 로마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타원형 외관의 건축물로, 밴쿠버 시민들의 지식 창고이자 가장 사랑받는 공공 문화공간임. 도서관 내부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한 대형 유리 지붕의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상점, 카페,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어,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시민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광장이자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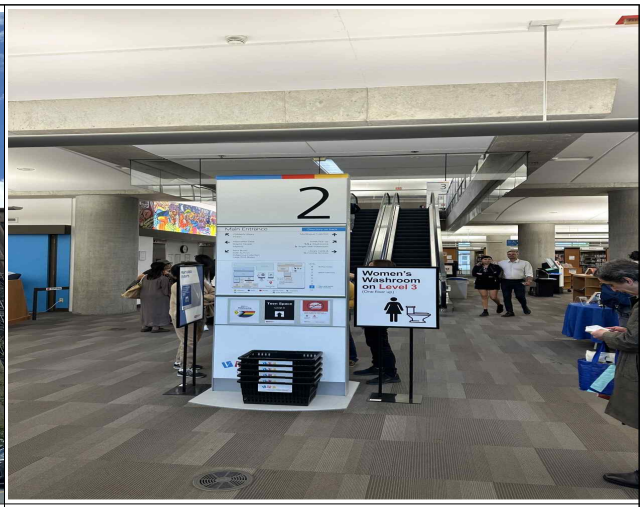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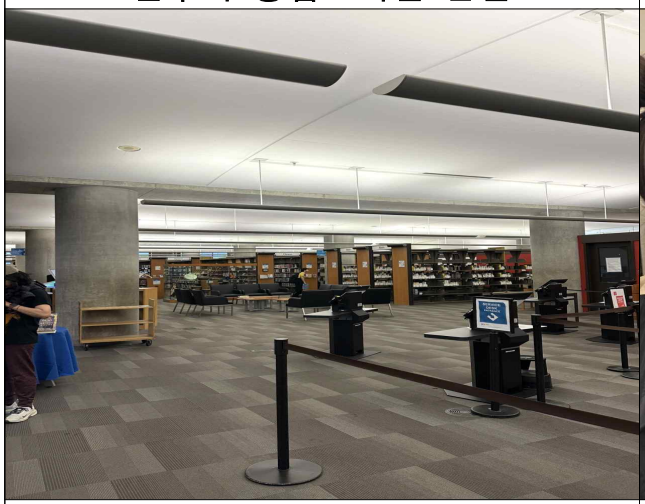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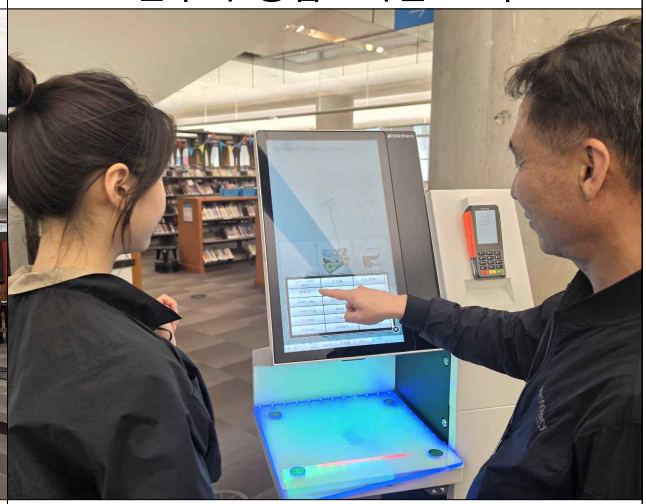
○ VPL은 전통적인 도서 대출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특히 음향·영상·디지털 디자인 작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창작공간 ‘인스퍼레이션 랩(Inspiration Lab)’과 도심 속 휴식공간인 옥상 공공정원(Roof Garden)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의 우수 사례임.

➡ 이에 밴쿠버 공립도서관의 디지털 창작공간(Inspiration Lab) 운영, 옥상 공공정원 조성, 시민참여형 복합문화 프로그램 등 선진 운영모델을 조사하여,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인 전북 대표도서관의 공간 구성 및 시민 친화적 특화 프로그램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아울러 이민자와 다민족 구성원이 많은 밴쿠버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영어를 포함한 16개 언어의 도서 및 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이민자를 위한 ESL(외국어로서의 영어) 회화 프로그램과 정착 지원 세미나 등 다언어·다문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포용적 공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 장벽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밴쿠버 공립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제공 및 ESL 회화 프로그램 등 다문화 특화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운영모델을 전북 대표도서관의 외국인·다문화 가정 대상 서비스 설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
</td></tr>
<tr><td>밴쿠버 공립도서관 본관</td><td>밴쿠버 공립도서관 로비</td></tr>
<tr><td></td><td></td></tr>
<tr><td>밴쿠버 공립도서관 내부</td><td>밴쿠버 공립도서관 자료실</td></tr>
</table>

1-2 BC플레이스 밴쿠버, 밴쿠버 컨벤션센터

○ 방문일정 : ‘26. 5. 10.(일) 16:00
○ 주　　소 : 777 Pacific Blvd, Vancouver, BC V6B 4Y8, 1055 Canada Pl, Vancouver, BC V6C 0C3 Canada
○ 홈페이지 : https://www.bcplace.com/
https://www.vancouverconventioncentre.com/

□ 방문지 소개

○ 밴쿠버 컨벤션센터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최고 등급(플래티넘)을 건축 및 운영 부문에서 각각 획득한 글로벌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임. 본 시설은 축구장 4개 규모에 달하는 광활한 ‘그린 루프(옥상 정원)’를 조성하여 건물 열효율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빗물을 재활용하고 도심 내 생태 복원을 주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건축물로 완벽히 구현함.

○ 연간 550여 개의 국제행사와 1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하며, 약 3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3,0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등 MICE 산업이 도시의 경제적 엔진으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모델을 보여줌. 또한, 단순히 대관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인근 관광 자원 및 숙박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집적 구조를 갖추어 참가자들의 체류와 소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 밴쿠버 도심 중심에 위치한 밴쿠버의 상징적인 다목적 돔 경기장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국제 이벤트를 치러낸 세계적인 규모의 인프라임. 기존의 노후화된 공기 부양식 지붕 구조를 세계 최대 규모의 ’개폐식 케이블 지붕‘으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감행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향후 50년 이상 활용 가능한 최첨단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음.

○ 특히, 개폐식 지붕은 날씨 변화가 잦은 밴쿠버 기후에서 대형 콘서트, 축구 경기, 대규모 전시 등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무휴로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함. 이는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대형 전시 및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함을 입증하는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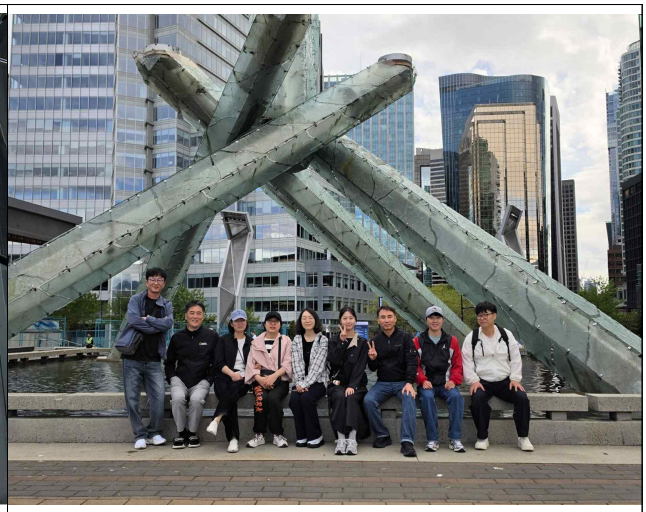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개최, 군산 국제회의지구 선정 등 MICE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밴쿠버 컨벤션센터의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및 지역 연계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건립될 전주컨벤션센터가 단순 회의장을 넘어 지역 산업의 허브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북형 MICE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함.

➡ 밴쿠버 컨벤션센터의 '그린 루프'와 에너지 순환 설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한 우리 도 공공건축물의 방향성을 제시함. 향후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생태계 복원 기술과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전북을 친환경 MICE 중심지로 브랜딩할 필요가 있음.

➡ BC 플레이스의 개폐식 지붕 리모델링 사례처럼, 시설의 물리적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되는 도내 노후 체육·전시 시설에 대해 단순 보수보다는 '기능적 고도화(Modernization)' 전략을 도입해야 함. 시설의 본질적인 기능에 최첨단 IT 기술과 가변형 설계를 더해, 대형 국제 이벤트 유치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두 시설 모두 도심 관광 및 교통 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음. 우리 도의 MICE 인프라 또한 건립 부지 선정 단계부터 인근 관광 자원 및 숙박 등 연계 인프라와의 결합도를 고려한 입체적인 도시 공간 전략이 선행되어야 함.

□ 방문 사진

	
밴쿠버 컨벤션센터	밴쿠버 컨벤션센터 단체사진
	
BC플레이스 밴쿠버	BC플레이스 밴쿠버 단체사진

2-1 밴쿠버 시청 · 시의회

○ 방문일정 : ‘26. 5. 11.(월) 10:00
○ 주　　소 : 453 W 12th Ave, Vancouver, BC V5Y 1V4 캐나다
○ 면 담 자 : Lily Chen / City Clerk’s Office
○ 홈페이지 : https://vancouver.ca

□ 방문지 소개

○ **밴쿠버 시청·시의회(Vancouver City Hall)** : 밴쿠버 시청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시의 행정 및 의회 운영의 중심기관으로, 도시계획, 주거, 교통, 환경, 공공안전, 문화, 지역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공간임.

○ 밴쿠버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일반 지방정부 법제가 아니라,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인「Vancouver Charter」에 따라 운영됨. 이 법률은 밴쿠버시의 조직, 의회 구성, 조례 제정, 재정, 도시계획 권한 등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밴쿠버시가 다른 지방정부와 구별되는 독자적 제도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

○ 밴쿠버시 의회는 시장 1명과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시장과 시의원은 모두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됨. 특히 시장이 시정부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의회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임.

○ 밴쿠버시의 행정집행은 City Manager를 중심으로 한 전문 행정조직이 담당함. 즉, 시의회가 정책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전문 행정조직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행정실무를 분리하면서도, 의회와 행정조직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즉, 밴쿠버시청은 시장, 시의회, 전문 행정조직이 하나의 지방정부 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운영되는 구조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직접 적용하기보다, 의회가 도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전략적 의정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1. 밴쿠버시의회 구성 및 기능

○ 밴쿠버시의회는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구성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시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시의회는 조례, 예산, 세금, 주요 정책방향 등을 결정함. 다만 실제 행정집행은 City Manager를 중심으로 한 전문 행정조직이 담당함.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과 분리된 독립 의결기관으로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도정질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밴쿠버시의회는 정책결정과 행정집행 간 연계성이 강한 구조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조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이는 제도적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운영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음.

구분	밴쿠버시청·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관성격	행정과 의회 기능이 결합된 시정부 중심기관	집행기관과 분리된 독립 의결기관
구성	시장 1명, 시의원 10명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원
의장 역할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겸함	의원 중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
집행 구조	City Manager 중심 전문 행정조직	도지사 중심 집행부
운영 특징	정책결정과 집행 간 연계성 강함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강함

◘ 밴쿠버시의 시장·의회 결합형 구조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의회가 지역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집행부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상임위원회별 핵심 의정과제를 설정하고, 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을 해당 과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밴쿠버시의회 사무처 운영 및 회의진행 방식

○ 밴쿠버시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은 City Clerk's Office임. 이 조직은 의사일정 편성, 회의자료 공개, 회의록 작성, 시민발언 접수, 공청회 운영, 회의영상 게시, 표결기록 공개 등 회의 운영 전 과정을 관리함.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으로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음. 이는 의안 검토,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지원, 조례안 검토 등 전문적 의정지원 기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음.

○ 차이점은 밴쿠버시의회가 회의자료 공개, 시민의견 접수, 회의록·영상 공개, 표결기록 관리 등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해 운영한다는 점임.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의안정보, 회의록, 인터넷방송,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이 각각 제공되고 있어 도민이 하나의 안건 처리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밴쿠버시의회 회의는 본회의, Standing Committee, Public Hearing, In-camera meeting 등으로 구분됨. 본회의는 조례, 예산, 주요 정책 등을 최종 결정하고, Standing Committee는 직원보고와 시민의견을 청취한 뒤 권고안을 마련함. 최종 의결은 Council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체계를 운영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국의 조례안,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함. 따라서 밴쿠버의 Standing Committee가 권고 중심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실질 심사기능이 더 강한 구조라 볼 수 있음.

3. 시민참여 및 의사결정 공개 방식

○ 밴쿠버시의회는 회의 안건과 보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이 해당 안건에 대해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도시계획, 재개발, 토지이용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공청회 절차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함.

○ 이러한 방식은 의회 회의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례임. 시민은 회의 전 안건을 확인하고,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 후에는 회의록과 영상, 표결기록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회의록 공개, 인터넷 생방송, 방청, 청원, 진정, 주민조례청구,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참여·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안건별 의견제출, 심사 전 도민 의견수렴, 의견 반영 결과 안내 등은 보다 체계화할 여지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회의공개를 '과정공개'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 조례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 도정질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도민용 요약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를 마련한다면 도민참여형 의회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음.

4. 밴쿠버시의회 우선전략 정책 운영

○ 밴쿠버시의회는 「Vibrant Vancouver: City Council's Strategic Priorities 2023-2026」을 통해 시정 운영의 우선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시의회가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우선전략은 활력 있고 다양한 도시 조성, 주거문제 대응, 지역경제 지원,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 관리, 안전과 보안, 기후위기 대응, 건강·포용·형평, 원주민과의 화해, 좋은 정부 구현 등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는 3-3-3-1 인허가 처리목표제, Villages·Missing Middle Housing 생활권 주거정책, 그린 빗물관리 인프라, 좋은 정부·행정혁신 전략이 있음.

구분	밴쿠버시의회 우선전략	주요 내용
지역경제	3-3-3-1 인허가 처리 목표제	인허가·면허 절차 간소화, 디지털화, 사업면허 체계 현대화
주거정책	Villages·Missing Middle Housing	중간주택 확대, 저층 복합주거, 생활권 단위 주거·상권·공공공간 연계
기후위기 대응	그린 빗물관리 인프라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등을 통한 도시침수·수질관리
행정	행정혁신 및 재정책임	비세입 수입 확대, 행정절차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조직역량 강화

◘ 밴쿠버시의회 우선전략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인구감소, 새만금 개발, 미래산업, 농생명산업,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외국인 주민 정책, 광역교통, 지역균형발전 등을 의회 차원의 중점 의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밴쿠버시청 전경</td><td>밴쿠버시청 브리핑룸</td></tr>
<tr><td></td><td></td></tr>
<tr><td>밴쿠버시의회 내부</td><td>질의응답 및 시설견학</td></tr>
</table>

2-2 비아레일 ViaRail

○ 일　　정 : ‘26. 5. 11.(월) 15:00 ~ ‘26. 5. 12.(화) 10:00
○ 주　　소 : 1150 Station St, Vancouver, BC V6A 4C7, canada (밴쿠버 비아레일역)
○ 홈페이지 : https://www.viarail.ca/en

□ 방문지 소개

○ 비아레일(ViaRail)은 캐나다 전역을 연결하는 대표 국영 철도임. 특히 서부 밴쿠버에서 로키산맥의 관문인 재스퍼를 거쳐 동부 토론토까지 이어지는 ‘더 캐나디안(The Canadian)’ 노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철도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진화시킨 성공 사례임. 20세기 초 철도 여행이 주는 낭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캐나다의 광활한 대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었음.

○ 열차 구조는 경관 감상과 탑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열차 상단 전체를 특수 통유리로 제작한 파노라마 돔은 로키산맥의 거대한 설산, 폭포 등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탑승객들에게 개방감과 시각적 감동을 제공함.

○ 비아레일의 내부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과 휴양이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 승객들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주요 거점들에 대해 설명을 듣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 칸에서는 셰프들이 캐나다의 현지 식재료로 조리한 요리를 즐길 수 있음. 이처럼 차창 밖의 자연과 내부의 고품격 숙박시설, 문화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철도 위 크루즈’를 구현함.

○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내부 콘텐츠를 프리미엄화하여 경제적 자립성을 도모하고 있음. 밴쿠버-토론토 노선의 이용객 비중은 전체의 약 1.7%(연간 약 7.6만 명) 수준이지만, 일반 출퇴근 노선(Corridor) 대비 승객 1인당 매출이 약 11.4배에 달함. 이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특성상 발생하는 적자 구조 속에서 고부가가치 체류형 콘텐츠가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는 재정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함. (출처: VIA Rail Canada, 2025 Annual Report)

광역 교통(철도)과 국립공원의 생태 거점을 하나의 명품 관광 상품으로 묶어낸 선진 사례인 만큼 도내 KTX 및 관광열차 노선과 연계하여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국립새만금수목원' 등을 잇는 광역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동 수단 내부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로컬 푸드 다이닝 등을 도입하여 '이동 공간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 동부 산악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독창적인 프리미엄 체류형 철도·교통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함.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비아레일 탑승 승강장</td><td>비아레일 기차</td></tr>
<tr><td></td><td></td></tr>
<tr><td>360도 파노라마 돔</td><td>기차 내부 단체사진</td></tr>
</table>

3-1 재스퍼 국립공원

○ 방문일정 : ‘26. 5. 12.(화) 11:00
○ 주　　소 : 607 Connaught Dr, Jasper, AB T0E 1E0, canada(재스퍼역)
○ 홈페이지 : https://parks.canada.ca/pn-np/ab/jasper

□ 방문지 소개

○ 재스퍼 국립공원은 캐나다 알버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로키산맥에서 가장 광활한 자연 보호 지역으로 호수, 빙하, 협곡, 폭포를 비롯한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음. 이는 캐나다 로키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자연환경 보존과 관광 활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 관광모델의 선진 사례임.

○ 재스퍼 국립공원에서는 인위적인 울타리나 동물원식 격리 시설을 배제하고 야생동물이 서식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함. 서식지 환경이 청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이동 경로 상에서 엘크, 곰, 사슴, 염소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는 ‘자연형 생태 관찰’을 경험할 수 있음.

○ 이러한 자연 원형 보존 원칙은 빙하 지대 체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빙하 지형에 특화된 전 세계에서 23대뿐인 특수 설상차만을 제한된 경로로 통행시키고 있음. 이는 얼음 두께 300m의 아타바스카(Athabasca) 빙하와 만년설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차별화된 빙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재스퍼 국립공원만의 시그니처 관광 모델을 보여줌.

- 재스퍼 국립공원의 사례는 자연 원형 보존이 강력한 관광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함.
- 이는 전북 도내에서 추진되는 '동부 산악권 생태관광 벨트'나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등을 조성할 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서식처를 원형 보존하는 등 그 자체를 프리미엄 콘텐츠로 가치화해야 함을 보여줌. 이를 통해 자체 수익 구조를 확보하여 공공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등 전북형 지속 가능 관광의 핵심 전략을 모색해야 함.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재스퍼 국립공원 앞 단체사진</td><td>자연형 생태 관찰</td></tr>
<tr><td></td><td></td></tr>
<tr><td>특수 설상차</td><td>설상차 앞 단체사진</td></tr>
</table>

3-2 밴프 국립공원

○ 방문일정 : ‘26. 5. 13.(수) 15:00
○ 주　　소 : 224 Banff Ave, Banff, AB T1L 1A1
○ 홈페이지 : https://parks.canada.ca/pn-np/ab/banff

□ 방문지 소개

○ 밴프 국립공원은 1885년에 설립된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글로벌 생태관광의 중심지임. 밴프 국립공원은 관광객 유입 급증에 따라, 강력한 수요 관리와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환경을 보존하고 있음.

○ 핵심 명소인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와 모레인 레이크(Moraine Lake)는 일반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객 중심 체계로 운영함.

○ 특히 밴프는 페어몬트(Fairmont) 계열의 글로벌 호텔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고부가가치 체류 환경을 구축함. 마릴린 먼로 등 세계적 명사들이 투숙했던 역사적 랜드마크인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과 호수 전경을 독점 조망하는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는 자연과 동화되는 고풍스러운 건축미로 전 세계 고소득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앵커 시설임.

○ 이와 연계된 밴프 중심 시가지(Town of Banff)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실제 공원 내 종사자만 거주를 허용하는 ‘법적 거주권 제한 제도’를 통해 상주인구를 엄격히 통제(인구 쿼터제 효과)하고 있으며, 상업 시설 역시 주변 설산의 조망권 보호와 생태학적 보존을 위해 건물의 최고 층수를 3층 이하로 짓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태적 미관과 청정

환경을 완벽히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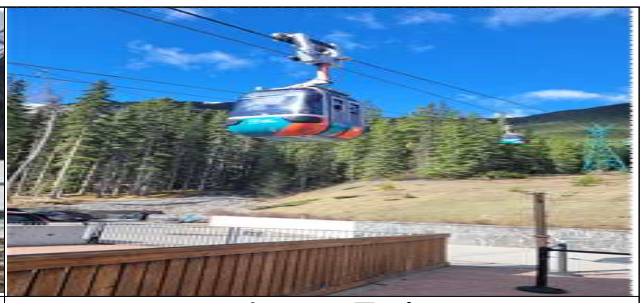
○ 밴프 국립공원의 밴프 곤돌라는 최대 4인이 탑승하여 설퍼산 정상으로 이어지는데 해발 2,281m 정상 거점에는 일광욕 의자와 야외 난로가 구비되어 있고, 루프탑 전망대, 주변 식생 간섭을 최소화하며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하이킹 보행 덱(Deck), 레스토랑, 로컬 기념품 숍 등의 복합 부대시설들을 융합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보존과 고부가가치 체류형 소비가 융합된 모델을 보여줌.

밴프 국립공원은 환경 보존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달성한 선진 모델을 제시함. 특히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고도 제한(3층 이하) 기준 마련과 친환경 자재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도시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대자연 속에 녹아드는 고품격 명품 숙박 시설(페어몬트 모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주변의 모빌리티(곤돌라 등) 및 지역 관광 콘텐츠와 패키지 형태로 긴밀히 연계하는 전략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부가가치 체류형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임.

□ 방문 사진



밴프 레이크 루이스 단체사진



밴프 곤돌라



밴프 설퍼산 정상 단체사진



밴프 설퍼산 정상 360도 뷰 감상 데크

3-3 요호 국립공원

○ 방문일정 : ‘26. 5. 14.(목) 15:00
○ 주　　소 : Field, BC V0A 1G0, canada
○ 홈페이지 : https://parks.canada.ca/pn-np/bc/yoho

□ 방문지 소개

○ 요호 국립공원은 1886년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폭포, 호수 등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 지질학 거점을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임. 인근 밴프 국립공원과 연계된 환경 규제 체계 속에서, 자연 고유의 원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에게 깊이 있는 생태 체험을 제공하는 선진 관리 모델을 유지하고 있음.

○ 핵심 명소인 에메랄드 레이크(Emerald Lake)는 빙하 퇴적물이 빚어낸 독보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호수 주변 난개발을 금지하고 있음. 자연 친화적인 목조 구조의 ‘에메랄드 레이크 롯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상업적 개발과 청정 수질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거센 물살이 바위를 깎아 만든 자연의 다리(Natural Bridge)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배제하고 자연의 풍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광 자원화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의 표준을 제시함.

◘ 요호 국립공원의 관리 모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창 갯벌’이나 ‘마이산 도립공원 타포니 지형’ 등 생태 자산 활용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거센 물살과 풍화 작용을 있는 그대로 자원화한 ‘자연의 다리’ 사례처럼, 배후 시설 조성 시 과도한 옹벽, 인공 덱(Deck) 등 인공 구조물을 지양해야 함. 자연의 훼손이나 변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생태 교육 콘텐츠로 인정하고, 자연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게 전북 동부 산악권 및 생태 거점 전역을 고품격 지질·생태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임.

□ 방문 사진

<table>
<tr><td>
</td><td></td></tr>
<tr><td>요호 에메랄드 레이크</td><td>요호 에메랄드 레이크 단체사진</td></tr>
<tr><td>
</td><td></td></tr>
<tr><td>요호 자연의 다리 표지판</td><td>요호 자연의 다리</td></tr>
</table>

4-1 리치먼드 시청

○ 방문일정 : ‘26. 5. 15.(금) 14:00
○ 주　　소 : 6911 Number 3 Rd, Richmond, BC V6Y 2C5 캐나다
○ 홈페이지 : https://www.richmond.ca/

□ 방문지 소개

○ 리치먼드는 메트로 밴쿠버 권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밴쿠버 국제공항이 위치한 교통·물류 거점이자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도시임.

○ 특히, 이민자와 외국계 주민 비율이 높은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 민원뿐 아니라 전화, 온라인 문의, 모바일 앱,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경로로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즉 리치먼드 시청은 단일 민원창구 중심이 아니라 방문·전화·온라인·모바일을 결합한 다채널 민원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유형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 시는 MyRichmond 앱을 통해 모바일 기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시민은 앱을 통해 재산세·공공요금·반려견 등록, 쓰레기 수거 일정 확인, 프로그램·활동 등록, 지역 행사 검색, 의견 제출, 불편사항 신고, 서비스 요청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는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전화 연결 절차를 거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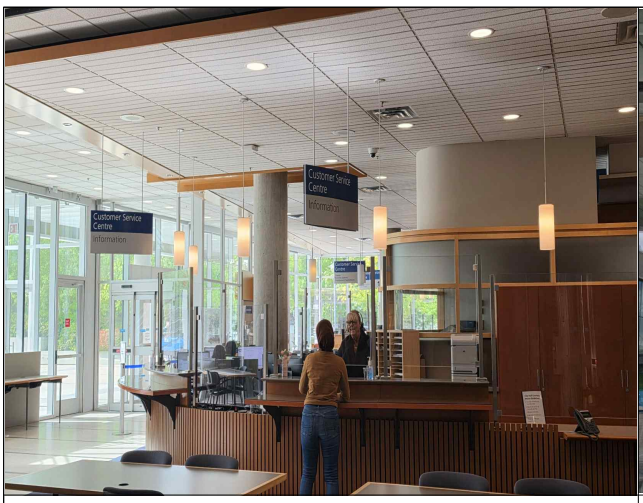
더라도 필요한 민원과 생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임.

○ 또한 리치먼드는 다문화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번역 기능, 신규 이주민 안내자료, 다국어 영상, 정착지원기관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즉, 리치먼드의 민원행정은 방문·전화 중심의 전통적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모바일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 특히 MyRichmond 앱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출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리치먼드의 MyRichmond 앱 사례는 민원서비스를 단순 접수창구가 아니라 생활정보, 공공요금, 신고·제보, 서비스 신청, 지역행사, 프로그램 신청 등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행정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줌. 전북특별자치도도 기존 온라인 민원·생활정보·공공서비스가 여러 부서와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면,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문 사진



민원실 전경



시청 게시판

4-2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 방문일정 : ‘26. 5. 15.(금) 17:00
○ 주　　소 : 6111 River Rd, Richmond, BC V7C 0A2, Canada
○ 홈페이지 : https://richmondoval.ca/

□ 방문지 소개

○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위해 건립된 시설로, 현재는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선 도시 재생의 상징이자 글로벌 웰빙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건축 단계부터 병충해 피해를 입어 폐기될 예정이었던 소나무를 활용해 거대한 물결 모양의 목재 지붕을 설계함으로써, 환경적 가치와 미학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한 전 세계 친환경 건축의 기념비적 사례임.

◘ 대형 스포츠 이벤트 시설 건립 시, 대회 종료 이후의 운영 방안을 건립 이전부터 확정하는 ‘레거시 플랜(Legacy Plan)’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경우, 시설물의 가변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육 복지로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 운영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 특히 방문 당시, 현장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실내 트랙과 코트를 이용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이 시설의 핵심은 ‘올림픽을 위한 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일상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점임. 시설의 일부만 특정 동호회나 선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교류하는 모습은 이 시설이

지향하는 '사회적 통합'과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여실히 보여줌. 현재 리치먼드 오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허브이자 글로벌 웰빙 센터로서, 스포츠 유산(Legacy)이 폐쇄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환원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음.

◘ 리치먼드 오벌의 방문 경험은 공공 체육시설이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통합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향후 도내 공공 체육시설 운영 시 장애인 맞춤형 동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설계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나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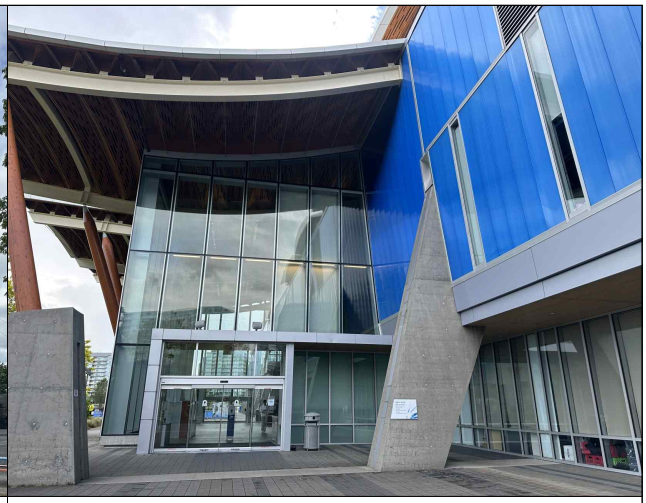
○ 본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이벤트 이후의 삶'을 고려한 완벽한 사후 활용 전략에 있음. 올림픽 종료 후 경기장의 빙상 트랙을 철거하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실내 육상 트랙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바닥 구조로 전환하였음. 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올림픽 이후 '하얀 코끼리(막대한 유지비만 들어가고 활용도는 낮은 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스포츠 시설 운영의 교과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는 연간 수십만 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허브이자, 스포츠 과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센터로서 도시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

◘ 대형 경기장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체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함. 도내 경기장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개방형 체육 프로그램과 다목적 문화 공간 기능을 결합하여, 스포츠 시설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대도시 간 협력 및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방문 사진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전경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입구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실내경기장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 아이스링크장

5-1 부차드 가든

○ 방문일정 : ‘26. 5. 16.(토) 10:00
○ 주　　소 : 800 Benvenuto Ave, Brentwood Bay, BC V8M 1J8, canada
○ 홈페이지 : https://butchartgardens.com/

□ 방문지 소개

○ 부차드 가든(Butchart Gardens)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인근에 위치한 정원 관광지로, 이 정원 부지는 원래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 채석장이었음. 1909년 석회암 채석이 완료된 후 구덩이만 남게 되자 소유주인 부차드 부부가 120여 년 간 전 세계의 희귀 꽃과 나무를 수집하고 확장하여, 55에이커(약 6만 7천 평) 규모의 정원이 되었고, 개인 소유의 정원이지만 2004년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매년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세계적인 정원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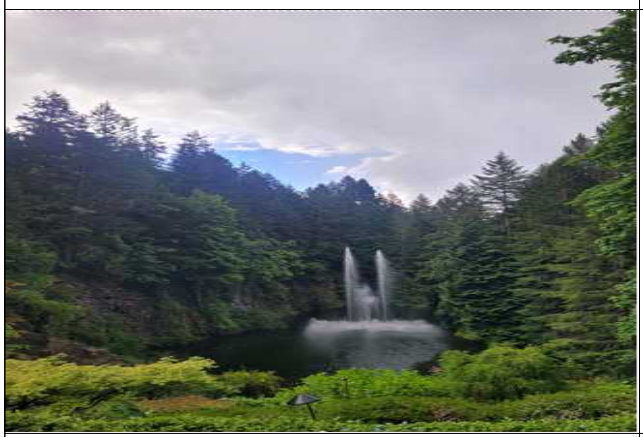
○ 특히 핵심 공간인 선큰 가든(Sunken Garden)은 석회암 채굴로 생긴 웅덩이에 가장 먼저 조성된 정원임. 주변 지형보다 아래로 내려앉은 독특한 구조임. 이는 석회암 채석장의 지형적 단점을 역발상으로 활용한 사례로 아래로 움푹 들어간 계단식 정원 설계를 통해 입체감과 색다른 관람 동선을 제공함.

○ 또한 정원 내에 로즈 가든(Rose Garden), 재패니즈 가든(Japanese Garden), 이탈리안 가든(Italian Garden), 지중해 정원(Mediterranean Garden) 등 대륙별·테마별 정원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매년 100만 그루가 넘는 꽃·식물들이 사계절 내내 연속적으로 피어나도록 식재 시스템을 구축함.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등 계절별·시간대별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단순 관람을 넘어 ‘체류형 정원

관광'을 견인함.

- **부차드 가든은 산업화로 훼손된 유휴 공간을 친환경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받음. 도내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등 환경 훼손 지역을 단순히 평탄화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부차드 가든의 '선큰 가든' 사례처럼 지형적 특성을 살린 입체적 테마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전북형 업사이클링 관광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함.**
- **단순한 꽃 식재 위주의 정원 조성을 지양하고, 유휴 공간에 서사를 입히는 한편, 야간 경관, 로컬 식음, 문화 공연 등을 융합한 사계절 복합 체류형 정원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육성해야 할 것임.**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부차드가든 단체사진</td><td>선큰 가든</td></tr>
<tr><td></td><td></td></tr>
<tr><td>선큰 가든 분수</td><td>부차드가든 내 식음 시설</td></tr>
</table>

5-2 빅토리아 주의사당

○ 방문일정 : ‘26. 5. 16.(토) 10:00
○ 주　　소 : 501 Belleville St., Victoria, BC V8V 2H2 Canada
○ 홈페이지 : https://www.leg.bc.ca/

□ 방문지 소개

○ 빅토리아 주의사당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의 정치적 입법기관으로, 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의결하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임. 19세기 말에 완공된 네오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로, 빅토리아 이너 하버(Inner Harbor)와 인접하여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완성하는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음.

○ 이 의사당의 운영 철학은 '권위의 개방'에 있음. 입법 기관이라는 엄숙한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청사 내부의 역사적 공간과 앞마당의 광장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야간에는 건물 외곽을 따라 3,000여 개의 조명을 점등하여 빅토리아시의 야경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는 체류형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

◘ 빅토리아 주의사당 사례는 의회가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줄 때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짐을 보여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도 의정활동 전시, 디지털 홍보관 확대, 광장 개방 등을 통해 도민 친화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의사당 건물의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활용한 문화 해설 프로그램과 야간 경관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의회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해야 함.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빅토리아 주의사당이 지역의 자부심을 상징하듯,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함. 의회 공간을 통해 도민들이 우리 도의 자치 정신과 미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형 토론회, 청소년 의회 체험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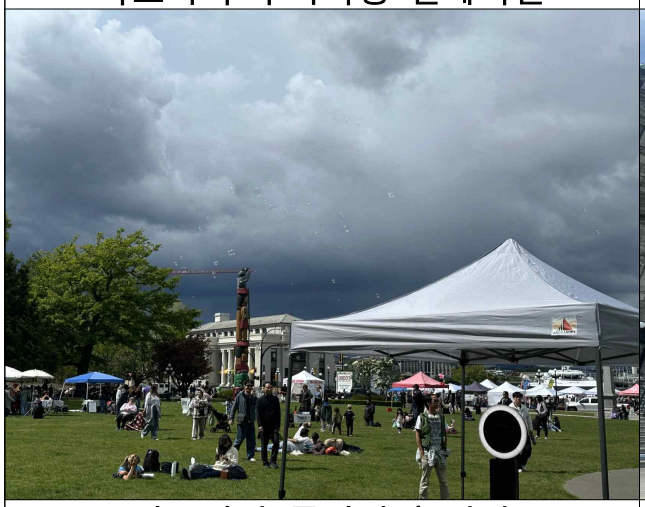
□ 방문 사진



빅토리아 주의사당 단체사진



빅토리아 주의사당



빅토리아 주의사당 전경



빅토리아 주의사당 전경

Ⅴ 맺 음 말

○ 이번 캐나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도서관, MICE 산업, 지방의회, 생태관광, 공공체육시설,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밴쿠버를 비롯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요 시설과 국립공원을 방문하며 도시의 성장과 자연환경 보전, 문화와 경제, 행정과 시민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의 경쟁력은 우수한 시설보다 이를 운영하는 철학과 장기적인 정책 비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밴쿠버 공립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디지털 창작과 시민교류, 다문화 포용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전북 대표도서관 역시 미래형 창작공간과 다문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밴쿠버 컨벤션센터와 BC 플레이스는 친환경 건축과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시설 기능 고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공공시설은 건립 자체보다 지속적인 활용과 지역경제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육성과 공공건축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밴쿠버시청과 시의회, 리치먼드 시청에서는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회와 행정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역시 정책 중심의 전략적 의정활동과 도민 참여 확대, 모바일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비아레일과 재스퍼·밴프·요호 국립공원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관광 콘텐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선진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함.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부 산악권과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은 국제대회 이후 시설을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과 사회통합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였으며, 공공시설은 건설보다 사후 활용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시설 또한 도민의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복합문화·체육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레거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차드 가든은 산업시설이었던 채석장을 세계적인 정원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였으며, 자연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문화와 체류형 관광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빅토리아 주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문화와 교육, 관광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과 더욱 가까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모든 사례는 지속가능성, 시민참여, 공간혁신,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가 도시 경쟁력과 행정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철학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수한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음. 특히 자연환경과 문화,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함.

○ 이번 캐나다 국외연수는 세계적 수준의 정책과 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국제적 시각과 정책적 통찰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음.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